

1. 고등학교 교실

a. 고등학교 교정. 수업이 끝난 뒤 느즈막한 오후의 교내 풍경.

방과 후 여유를 만끽하고 있는 교복 차림의 네 남자. 명구, 민석, 진규, 우성

한껏 고뇌에 빠져있는 민석과, 민석의 양쪽에서 열띤 첨언을 하고 있는 명구와 진규. 그리고 그들을 한심하게 바라보고 있는 우성.

진규 야 고백은 무조건 공개고백이지. 자기를 위해 한 남자가 쪽팔림을 무릅쓰고 고백을 하는데, 세상 어느 여자가 마다하겠나?

민석 그런가?

명구 맞아, 내가 아는 형도 운동장에서 풋볼 하트모양으로 깔고 공개고백 했는데 성공했대.

민석 정말?

명구 그렇다니까.

진규와 명구의 말이 영 탐탁치않은 민석.

그런 셋을 바라보던 우성 카메라를 보고는.

우성 지금은 모태솔로 민석이의 고백을 위한 회의중, 친구이기는 하지만... 이 새끼들은 진짜 악마다. 누굴 개망신 주려고 공개고백을...

진규 흥분한 듯 우성에게

진규 우성아, 넌 뭐가 더 나을 것 같냐?

우성 나?

진규 그럼 우성이가 여기 너 말고 또 있냐? 어떻게 생각해. 며칠 전에 고백도 성공했잖아.

우성, 골똘히 고민하다 일타강사에 빙의하여 강의를 시작한다.

우성 고백은 무조건 공개고백이지. 분위기 딱 만들어주면 여자애가 거절을 못한다니까? 아, 그리고 공개고백은 무조건 춤이야. 민석이 너 춤 잘 추잖아. 그 뭐야 앤디 하트 춤 알지. (하트춤 시범을 보이며) 그거 하면 대박이라니까?

명규 그거 좀 오래되지 않았냐?

진규 그래, 그리고 춤은 좀...

우성 야, 클래식한게 먹히는 법이야. 세상 귀엽게 하트춤으로 고백하는데 이 세상 어느 여자가 마다하겠나? 그리고 이게 다 민석이가 춤을 잘 추니까 할 수 있는 고백이라구. 나는 춤 못 춰서 이런 거 못해.

그동안 떨떠름하던 민석, 우성의 말에 한줄기 빛을 본 듯 행복하게.

민석 이야, 맞네. (우성에게 어깨동무를 하며) 역시 우성군이 인기 많은 이유가 있다. 좋아 오늘부터 하트춤 맹연습이다. 다들 도와줄거지?

우성 (민석과 어깨동무) 친구의 모술탈출을 위한 일인데, 당연 도와주고 말고. 너희도 도와 줄거지?

민석 오예~!

신난 우성과 민석, 하트춤 난발... 그들을 한심하게 바라보는 진규와 명구.

진,명 (V.O) 우성이 이새끼는 진짜 악마다.